

## Robert Vannoy, Kings, 강의 9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 산당 - 아사, 여호보암 - 금송아지

#### 높은 곳 - 아사

우리는 높은 곳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사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입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니다. 산당에 대해 논의하면서 열왕기상 3:2을 참조하겠습니다(NIV 연구 성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열왕기서에서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썼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것이 정당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취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방 제단을 취하여 단순히 여호와를 경배하는 장소로 바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의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찢으며 그들의 모든 산당을 찢어라.” “그들의 산당을 찢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방의 산당을 점령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신명기 7:5과 신명기 12:3에 비슷한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은 제단은 신이 승인한 장소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때때로 "제단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염소와 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을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연장으로 제단을 더럽히느니라 내 제단에 층제로 올라가지 말라 네 벌거벗은 것이 그 위에 드러날까 하노라 그래서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단의 법칙은 다수의 제단의 가능성을 상상하기에 아주 분명해 보이지만, 제단을 쌓을 때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중간인 출애굽기 20장 24-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점은 제단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곳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단을 쌓고 싶다고 결정한 곳에 임의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교 제단을 점령하지 않고 신성하게 승인된 장소에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상 3:2에 있는 이 기록으로 되돌아갑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러 개의 제단이 완전히 금지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된 후 성전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합법적인 예배나 희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을 읽는 특정한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이 당신이 그 땅에 들어올 때 궁극적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제단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제단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신명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신명기에 관한 문제는 성전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단의 우선권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장소가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주요 장소이자 확실히 연례 축제가

열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큰 잔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따라서 법제가 있고 성전이 있는 하나의 주요 성소가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른 곳의 다른 제단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것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러 개의 제단이 금지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교도의 제단을 파괴하고 신이 승인한 장소에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교도의 산당들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종교적 혼합주의로 이어져 강력하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높은 곳은 아닌 것 같다. 예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자주 사용되어 이스라엘에 거짓 예배가 들어오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비혼합주의적 유형의 예배, 일종의 바알 예배와 여호와 예배를 결합한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산당을 헐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반드시 모든 높은 곳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어떤 종류의 예배가 행해졌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신의 승인을 받은 장소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고려 사항.

**학생 질문:**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했다고 하셨으니, 그 땅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Vannoy의 답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특히 Asa와 조금 더 나아가고 싶지만 계속 진행하십시오.

**학생 질문:** 엘리야가 바알에게 도전했을 때...그는 무너진 제단을 발견하고...

**Vannoy의 답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의 요점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밖에 주님의 제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주님은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실제로 예배의 정당한 장소인 예루살렘 밖의 제단에 자신의 신성한 승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이세벨과 대결한 후 도망쳤을 때 결국 호렘산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열왕기상 19장을 본다면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대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을 내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나이다.” 이제 그가 말하는 방식은 그가 이 제단들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이방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고 신성하게 인가된 장소에 있는 제단이 예루살렘 외부에 있는 제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람들이 일종의 주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탄식하는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제단이에 *따라* 잘못된; 그들은 틀릴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에 *따라*.

이제 아사로 돌아가자(왕상 15:14).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NIV 연구 성경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서 그들은 다시 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산당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역대하 33:17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Asa와 관련이 없지만 거기에 있는 어법에 주목하십시오.

역대하 33장 17절에 보면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였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단이 신성하게 승인된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님께 대한 예배가 합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때때로 산당에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표시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역대하 15장 17절이 열왕기와 같이 아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4:3을 보십시오. 역대하 14:3 2에서 시작합니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하고”

역대하 14장 3절은 그가 이방 제단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다? 모순입니까? 14:3 절에서 “아사가 산당을 제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교도-가나안 숭배의 중심지였던 산당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즉, 그 구별이 있습니다. 이 산당 중 어떤 곳은 이교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를 위한 곳이었고, 이 곳 중 어떤 곳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높은 곳을 언급할 때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에 이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산당의 의미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그것은 종종 이교 예배 장소나 이교 제단에 있었고, 이스라엘 예배에서 이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당 숭배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려는 가족을 대신하여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은: 매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입니까? 북쪽의 단에 살고 있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실용성은 당신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에 주어진 필수 의식을 수행할 수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레위인들은 계속 왕래를 해야 한다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 항상 앞뒤로 이동합니까? 왜 그냥 거기 있어. 모든 것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예배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사이트에 있었을 것입니다. 즉, 제단을 제멋대로 쌓아서 누군가가 어딘가에 그냥 쌓아놓은 높은 곳.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도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하였으니 오경의 규례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당신은 높은 곳의 승인을 언급합니다. 제단이 어떻게 승인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Vannoy의 답변: 예를 들어 베델에서. 야곱이 거기에 갔다. 그는 사다리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신현(theophany)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그가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리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를 위한 합법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산당은 합법적인 산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보면 합법적인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목록을 얻을 때 당신은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모두 함께 언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계속됨 - 열왕기상 15장 - 구스 사람 제라에 대한 승리

자, 계속합시다. 우리는 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는 좋은 왕으로 묘사됩니다.

역대하에는 아사가 구스 사람 제라를 이긴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Kings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스 사람 제라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는 큰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제라가 큰 군대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오니 아사가 그를 영접하러 나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아사 앞에서 구스 사람을 치시니 쿠시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추적하여 많은 것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역대하 15장에는 아사가 후원하는 언약 갱신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역대하 15장 12절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팔과 뿔나팔로 큰 소리로 외치며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더라 온 유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분을 그들에게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사와 벤하닷의 동맹 - 열왕기상 15:18ff

그래서 아사 시대에 이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5장 18절 이하에서 아사가 다메섹의 이방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북왕국의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여 국경 지역인 리마를 요새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마는 남북 경계에 있는 곳으로, 리마를 요새화한 목적은 아무도 유다 왕 아사의 영토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염려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는 유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사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와의 성전 공간에서 은과 금을 거두어 다메섹에 다스리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신은 지도를 보고 그가 하고 있던 일이 북쪽 바아사 왕국의 등 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리아는 북왕국의 북동쪽에 있었다. 그는 이 조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은을 벤하닷에게 지불하고 벤하닷이 북쪽과 맺은 동맹을 끊도록 요청합니다. 벤하닷이 그렇게 합니다. 20절: “그가 아사 왕과 동의하고” 이어서 그는 북쪽 왕국을 공격합니다. 벤하닷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아가와 여기 킨네렛 온 땅을 갈릴리 바다까지 정복했습니다. 바아사는 이 말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당시 북 왕국의 수도였던 디르사로 갔습니다.

자,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벤하닷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아사가 벤하닷과 맺은 계약에 대해 앞서 언급한 역대하 16장 7절 선견자 하나니는 7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네 손에서 벗어났도다. 구스 사람과 리비아 사람이 큰 무기와 병거와 마병을 가진 큰 군대가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에게 헌신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땅을 두루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Asa가 하는 일에 유의하십시오. Asa는 이것 때문에 선견자에게 화를 냅니다. 너무 격분한 그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그 발에 병이 들어 괴로움을 당하였고(12절) 그가 병 중에도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질병은 열왕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왕상 15:23). 유다의 왕? 그러나 그가 늙어서 발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벤하닷과의 동맹에 대해 선견자 하나니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리아와 북부 왕국뿐만 아니라 남북 왕국 사이의 긴 투쟁의 시작입니다. (동일한 단어인 시리아 또는 아람 사이)와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

아사는 여기에서 실제로 본보기가 되는 어떤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아하스를 정죄하는 아하스가 뒤따릅니다. 아하스는 북왕국과 시리아, 즉 아람이 함께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금 더 나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는 아람과 북왕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앗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과 동맹을 맺었고, 이사야는 이에 대해 아하스를 정죄합니다. 아사에 관한 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벤하닷은 시리아에서 발견된 다메섹 왕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텍스트의 번역본인 또 다른 책입니다. 그것은 ~라고 불린다고때 문서. 239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 C.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

#### 1. 여로보암 왕조 - 열왕기상 11:26-14:20

##### ㅏ. 여로보암이 왕이 됨 - 열왕기상 12:1-20

"C"는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처음 세

왕을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조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열왕기상 11:26-14:20. 거기에 5개의 하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다”(12:1-20)입니다. 우리는 이미 르호보암과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12장을 살펴보고, 20절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소집하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세겜의 바로 그 모임과 부담을 덜어 달라는 요청과 그의 거절은 여로보암에게로 향하여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12장에서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비. 여로보암이 불법적인 숭배를 확립하거나 창시하다 - 열왕기상 12:25-33

“b”는 “여로보암이 불법적인 숭배를 확립하거나 창시하다, 12:25-33”입니다. 본문 후반부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견고히 하고 거기 거하였더니” 하다가 그는 북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예배 장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베델은 에브라임 남쪽에 있는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사이의 경계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은 멀리 북쪽에 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곳 모두에 예배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모세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보다 두 번째 계명, 즉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보다 앞서 있는 다른 신들.” 28절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들이 여기 있다.”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에 있을 때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참조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4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아지 뒷면에 신의 이미지가 있는 송아지나 황소의 비문이 발견되었으므로 송아지는 일종의 신의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32장과 여기에서 모두 행해진 것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위에 신의 형상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와 같이 추정하기 위해 8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 절기라고 합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여호와께 절기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와 관련하여 야훼가 승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야훼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상주하는 받침대로 여겨졌으나 그들은 야훼의 실제 형상을 짓지 않았는지, 아니면 송아지가 어떤 종류의 표상, 권력의 상징적 형태로 여겨졌는지 (이것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도는 야훼를 경배하려는 것이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위반은 첫 번째 계명보다 두 번째 계명에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은 죄이며, 이스라엘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북방 모든 왕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 여로보암이 하는 일은 예배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국의 안전과 백성의 충성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두 번째 명령, 아마도 첫 번째 명령도 위반하지만 분명히 두 번째 명령을 위반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예배 장소를 세웁니다.

**학생 질문:** 그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법적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까?

**Vannoy의 응답:** 아마도 둘 중 일부인 것 같습니다. 32절에서 “그는 15절에 축제를 붙여넣었습니다. 8일<sup>일</sup> 달”은 유다에서 열리는 절기와 같지만 다른 때입니다. 33절에 “15절에<sup>일</sup> 8일<sup>일</sup> 그 달 곧 자기가 정한 달에 제단에 희생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그는 모세 율법에서 고수할 것과 자신이 개정한 것 중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씨. 유다의 선지자 - 열왕기상 13장

알겠습니다. “ㄷ.” "유다의 선지자, 열왕기상 13장." 매우 흥미로운 챕터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베델로 갑니다. 여로보암은 그곳에 서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을 정죄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는 아이가 여로보암이 확보한 사생아 제사장들의 뼈를 벨엘의 그 제단에서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시야는 이 때로부터 약 300년 동안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는 931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620년대이니 요시야 시대보다 약 300년 전입니다. 당신은 "요시야가 와서 그 제단을 헐고 그 위에서 제사장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치에 일어난 요시야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놀라운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언에서 레위 왕조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북부 왕국에는 연결되지 않은 4개의 왕조와 왕조를 세우지 않은 여러 개별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에 일관된 노선이 없었습니다. 이 예언은 물론 남쪽에 어쨌든 다윗의 약속과 일치하는 노선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 장기적인 예언과 관련하여 그는 우리에게 단기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니.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징조는 이것이니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징조대로 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진 것 같이 되었던라. 따라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지켜본 바로 그 날에 성취된 단기 예언에 의해 확인되거나 입증된 장기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손을 내밀며(4절) “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뺀으면 오그라들어 뒤로 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손이 전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과 유다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에게 집에 가서 함께 먹자고 권하지만 선지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나는 장과 그가 그에게 말하는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를 네 집으로 데려다가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매 18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그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신 곳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도다 먹거나 마시기 위해. 그러므로 네 몸이 네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아니하리라.” 즉, 그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일종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사자가 당나귀와 함께 시체 옆에 서서 당나귀를 공격하지 않고 시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와서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와 말씀의 선포하고 이 놀라운 예언을 하였으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여로보암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3장 끝부분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 후에도 자기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는 산당들을 위하여 각 부류의 제사장들을 임명하였다.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산당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이야기가 좋은 사람과 나쁜 선지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은 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다가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말하니라. 이 시점에서 그의 개인적인 관심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그는 매우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애슐리 부손(Ashley Busone)이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